

Review

명저산책

홀리오 코틀러의 『페루의 계급, 국가, 민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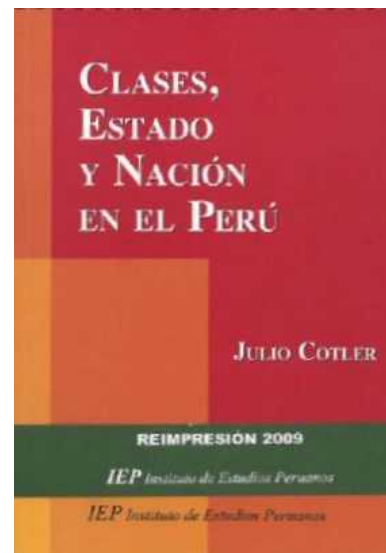
서지현

1. 페루: 근대 민족 국가 ‘발전의 역설’

2011년 출간된 『분열된 정치: 페루 민주주의의 과거와 현재』라는 책은 오늘날 페루가 직면하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 시도이자 1978년 처음으로 출판된 홀리오 코틀러의 『페루의 계급, 국가, 민족』(Clases, estado y nación en el Perú)이 페루 사회에 던지는 현재적 의의를 살펴보고, 재성찰하기 위한 여러 페루 전공 학자의 노력을 모은 결과물이다. 이는 많은 학자가 『페루의 계급, 국가, 민족』이 출간된 지 30여년이 지난 현재에도 여전히 페루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출발점으로 이 책을 인식하고 있음을 증명한다. 1978년 책에서 군부가 주도하는 ‘페루식 개혁주의’가 등장하게 된 가장 주된 요인으로 식민 유산에 따른 이중적 사회 구조와 전통적인 정치 엘리트의 통치 정당성의 위기를 들고 있는데, 코틀러의 이러한 장기적인 역사적 관점에서의 사회 비판은 2011년 책에서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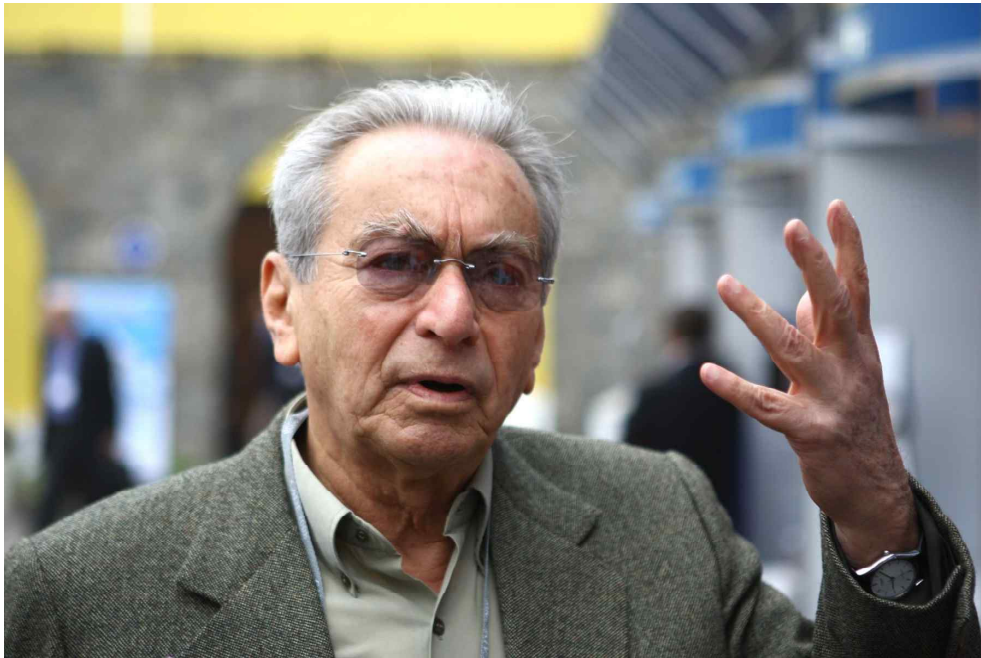
2011년에 출간된 『분열된 정치』에서 코틀러는 2000년대 이후 역사상 유례없는 경제 성장을 기록한 페루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은 경제 성장률과 비례하여 증가하고 있는 사회적 소요와 민주제도의 허약성에 따른 정치사회적 불안정성의 증가라고 지적한다. 이를 코틀러는 ‘발전의 역설’이라고 불렀는데, 이는 경제 성장 방식을 둘러싸고 페루가 정치사회적으로

양분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경제성장 방식에 찬성하지 않는 다수가 존재하고, 발전의 방식에 대한 차이를 조율할 수 있는 정치제도의 발전이 미약한 상황에서는 더욱더 정치사회적 불안정성을 지속적으로 노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발전 방식에 대한 차이는 크게 다음 두 가지로 양분된다. 한쪽에는 부의 사회적 분배를 위해 민족주의적(nationalist)이고 대중적(popular)인 사회 개혁을 주장하며 신자유주의 정책을 반대하는 세력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전자와 같은 민주주의(populist) 정책을 비판하고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장주의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세력이 포진하고 있다.



『페루의 계급, 국가 그리고 민족』 (출처: <https://www.casadellibro.com>)

코틀러는 페루 사회에서 오늘날 관찰되는 발전의 역설은 페루가 통합된 (민족) 국가로서 질서(national order)와 시민적 권리나 법치, 민주주의적 권위에 기반하며 전 국민을 아우를 수 있는 공통의 정체성(collective identity) 형성에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는 코틀러가 1978년 책에서도 지적하고 있듯, 식민지 시대의 유산이라고 볼 수 있는 이중적 사회 구조가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한 이후에도 다수의 대중을 배제하며 소수의 과두 지배 세력이 지배해 온 전통적인 사회 질서는 1930년대 이후 다양한 세력이 비판했고, 20세기 중반 이후 개혁적인 군사 정권이 일부 개선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루의 양분된 사회 구조가 타파되기는커녕 이후의 페루 자본주의 발전과정과 민주제도 발전의 허약성으로 오히려 심화되는 경향도 보였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경제 성장은 ‘국가’ 혹은 ‘국민’을 위한 발전이라기보다는 지배 세력과 일부의 대중에게만 혜택을 주고 다수의 대중은 이러한 발전의 혜택에서 배제 혹은 소외시키는 불균형적인 형태의 발전하면서 끊임없는 사회적 분쟁과 정치적 위기로 이어져 왔다는 것이다.



홀리오 코틀러 (출처:<http://www.andina.com.pe>)

다시 말해, 이전의 페루 발전 모델과 마찬가지로 1990년 후지모리 정권하에서 본격화된 시장주도 발전 모델에서도 민간 투자의 증대와 수출 증가로 페루 역사상 유례없는 거시 경제의 성장을 이룩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페루 국민은 이런 성장의 혜택을 받지 못함으로써 성장에 따른 사회 분쟁 또한 증가하였다고 지적했다.

이렇게 사회 분쟁이 증가하게 된 것은 2000년 후지모리의 권위주의 정권이 붕괴한 이후 대중의 정치 참여 기회가 늘어나게 되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민주주의 공고화를 위해 사회 각 부분에 민주주의 제도 개혁이 시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혁의 성과가 한계에 부딪히면서 정치 제도권 내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율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즉, 코틀러에 따르면, 2000년대 이후 페루 사회가 목격하고 있는 발전의 역설은 근본적으로는 경제성장이 식민지의 유산이라고 볼 수 있는 이중 사회 구조를 심화시켰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를 정치 사회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제도적, 사회적 장치가 제대로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코틀러가 페루 사

회의 이해를 위해 30여년전에 강조한 장기 역사라는 관점의 이해는 여전히 유효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2011년 『분열된 정치』를 편집한 존 크랩트리가 지적하듯, “페루는 여전히 식민 유산과 그에 따른 뿌리 깊은 불평등의 패턴으로 인해 제도적 발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독립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았다”(Crabtree 2011, xvii). 또한 페루는 “통합, 응집, 소속감 혹은 (근대 민족 국가의) 시민권”으로 규정될 수 있는 ‘민족’을 형성한 적이 없다(ibid.). 다시 말해, 독립을 달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역사적 단절(corte histórico)을 완벽하게 경험하지 못한 페루에서는 식민 전통의 지속이라고 할 수 있는 과두 지배세력의 지배가 지속되었으며, 새로운 사회 세력은 독립 공화국의 ‘시민’으로 형성될 기회를 갖지 못했다는 것이다(ibid.). 결과적으로 현재 페루 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발전의 역설’을 이해함에 있어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역사적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2. 페루식 개혁주의: 장기적 관점의 역사 이해의 필요성

코틀러의 『페루의 계급, 국가 그리고 민족』이 처음으로 출간된 1978년은 1968년 후안 벨라스코(Juan Velasco) 장군의 군사 쿠데타가 일어난 이후 12년간의 군부 주도 ‘페루식 개혁주의’ 실험이 마무리 되어가고 민주주의 이행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던 시기였다. 벨라운데 정권(1963-1968)에 반대한 군부의 쿠데타가 발생한 1968년부터 1980년 민주주의 정권으로의 이행과정에서 다시 정권을 잡게 되는 벨라운데 2차정부(1980-1985) 등장까지 12년간의 군사 정권 시기는 ‘페루식 개혁주의’, ‘국가 자본주의의 제3의 길’, ‘페루식 실험’, ‘위로부터의 개혁’ 등 다양한 수식어로 많은 분석이 이루어진 시기이다. 코틀러가 『페루의 계급, 국가 그리고 민족』의 서론에서 밝히고 있듯 이 책을 집필하게 된 원래 목적은 스페인의 식민지배에서 독립한 라틴아메리카의 다른 국가들과 비교할 때 비교적 늦은 시기에 이러한 개혁주의의 시도가 군부의 주도로 이뤄지게 된 원인, 즉 벨라스코 군사정권이 등장하게 된 정치사회적 배경을 밝히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코틀러는 “군사 정권의 특수성과 정치 프로젝트의 성격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1950년대부터 시작된 과두 지배 세력의 통치 위기에 대한 분석



후안 벨라스코 (출처: <http://www.elpopular.pe>)

과 이러한 통치 위기로 인해 이후의 군사 정권이 성격이 몇 단계로 다르게 형성되었다고 설명하기에는 부족한 바가 있다”고 지적했다(46). 코틀러에게 있어 1960년대 말부터 등장하게 된 ‘위로부터의 개혁’이라는 특수한 페루 사회의 발전 국면을 이해하는 방식은 보다 장기적인 역사적 관점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애초에 군사 정권 등장의 원인을 분석하려던 코틀러의 프로젝트는 독립 이후 페루 사회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쳐 온 식민 유산에 대한 비판, 즉 자본주의 발전의 종속성, 이중적 사회 구조의 지속성에 대한 비판으로까지 확장되었다. 코틀러에 따르면, 군사정권 시기 ‘페루식 개혁주의’는 사회 구조에 변화를 야기한 측면이 없지 않으나 식민 유산은 여전히 지속적인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페루가 통합된 국가로 발전하지 못하고 끊임없는 정치사회적 불안정성을 노정하고, 주기적으로 경제 위기를 봉착하게 되는 원인이다.

코틀러는 페루 사회의 특수성은 페루가 독립한 이후에도 지속된 식민 유산과 구조 개혁의 한계에 따라 발전의 새로운 사회적 조건을 마련하지 못한 점에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식민 유산은 크게 두 측면으로 나눌 수 있는데, 한 측면은 자본주의 발전과 그 종속적 사회구조이고, 또 다른 측면은 원주민에 대한 식민적 착취의 지속성이다. 먼저 첫 번째 측면을 살펴보면, 식민지 시대와 유사하게 독립이후에도 페루 사회는 북반구의 자

본주의 발전에 종속적인 특징을 보였다. 페루의 발전 과정을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식민지 시대 스페인의 식민주의적 중상주의의 영향 하에서 착취적 형태의 원자재 수출은 독립 이후 19세기 유럽 국가의 상업적 경쟁 하에서 지속되었으며, 20세기에는 착취의 주체가 미국 자본으로 바뀌면서 이들 자본이 주도하는 독점적 자본주의 발전이 확대되어 포령(enclave)식 원자재 개발과 수출이 이뤄졌다. 이후 이러한 원자재 개발과 수출에서 산업 생산과 도시 서비스업으로 경제 활동이 다변화되기는 했지만, 이러한 경제 활동 역시 자본주의 발전의 국제 노동 분업 구조가 일부 다변화되면서 가능해진 것이었다. 결국 이러한 페루 자본주의 발전의 종속적 사회 구조와 관련하여 코틀러가 지적하는 점은 페루 사회의 변화가 중심부 국가의 자본주의 발전에 종속되어 있었는데, 페루의 경우 종속 정도가 다른 라틴아메리카 국가와 비교할 때 매우 심화되었기 때문에 국내 민족 자본이 일부 생산 수단을 통제하는 등의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러한 자본주의 발전의 종속성이 페루의 정치 사회적 이중적 구조의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또 다른 식민 유산에 따른 페루 사회의 특수성은 원주민에 대한 식민적 착취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다. 주지하다시피 정복 이후 페루 원주민은 경제적 이윤을 강탈하기 위한 대지주 중심의 식민주의자와 자본주의적 관계에 기초한 착취 대상이었으며, 이러한 원주민에 대한 식민주의적이고 전자본주의적인 착취 관계는 사회문화적, 즉 인종적 특징을 배태하고 있었다. 이러한 식민 유산에서 비롯된 지배·종속의 관계는 인종적 특징을 가지게 된 것이다. 이는 이후 민족 국가 형성을 위한 지배층의 노력에서도 인종적 측면이 지속적으로 배제되고 계급적이고 대중적인 측면만 강조되게 되는 점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상에서 코틀러가 지적한 두 가지 측면의 식민 유산은 독립이후 페루 사회의 발전 과정에서 서로 혼합되거나 강화되어 나타났다. 코틀러가 지적하듯이, 이러한 식민 유산과 종속적인 자본주의 발전 및 이에 따른 이중적 사회 구조의 형성과 착취로 인해 페루는 하나의 국가 사회로 발전하지 못했으며, 이로 인해 페루 내에서 외국 자본의 지배가 더욱 용이해졌고, 식민적 정치 통제가 지속되었으며, 이중적 사회 구조 역시 유지되는 경향을 보이게 되었다는 것이다.

더욱이 이러한 이중적 사회 구조 하에서 국내 지배 엘리트 세력의 통치 헤게모니가 안정적이지 못했으며, 지배 세력은 이러한 사회 구조에 대한 대중 세력의 개혁이나 변화 요구가 제기되거나 정치적, 사회적 위기가 노정될 때마다 정치적인 해결책보다는 폭력적이고 강압적인 해결책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사회 구조 개혁을 위한 대중적 대안은 번번이 실패하였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1932년 부정 선거에 대한 비판으로 트루히요 지역에서 폭동을 일으킨 아프라(APRA) 당을 불법화하고 군부가 지속적으로 억압한 사례를 들 수 있다. 다시 말해, 페루에서는 사회 전체가 정치적으로 공통의 정체성하에 통합되어 국가가 통치 정당성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상태에서 중앙집권적으로 통치하며 발전을 추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던 것이다. 대신, 국가는 억압적인 사회 통제의 방식이 아닐 경우에는 전형적인 후원주의(clientelismo político)에 의한 정치사회 관계에 기초하고 있었으며, 이를 통해 정치사회적 불안정성을 극복하려고 했다. 결과적으로, 페루의 지배 엘리트 세력은 민주주의 제도에 기초한 자유 민주주의적 정치를 발전시키고 하나의 공통된 정체성에 기초한 근대 민족 국가를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이 부족했으며, 이중적인 사회 구조 하에서 각 사회 영역 간의 갈등과 충돌을 조정할 능력을 제대로 발전시키지 못했다.

특히 이러한 국가의 통치성 위기는 자본주의 발전의 생산 구조가 변화하고, 그에 따른 사회 구조가 변동하기 시작한 40년대 말부터 50년대 노출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50년대부터 사회 각 부문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정치사회적 운동과 대중 부문의 이데올로기적 논쟁은 기존의 후원주의로 유지되던 통치 정당성에 본격적으로 비판을 제기하였으며, 1960년대 정치권 내에서 일부 개혁시도가 있었으나 그 개혁 시도가 기존 엘리트 세력의 방해로 한계에 마주하면서, 1968년 등장한 ‘진보적인’ 군부 세력이 본격적으로 시도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코틀러가 지적하고 있듯, ‘위로부터의 개혁’을 시도한 군부는 통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새로운 사회 세력이 요구하는 개혁을 일부나마 수용해야 했으며, 페루의 자본주의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가의 역할을 한층 강화하고자 했다. 하지만, 제한적인 개혁을 시도한 정권의 의도와 달리 사회의 변화 요구는

‘페루식 개혁주의’가 의도한 범위보다 훨씬 많은 요구를 하게 되었으며, 결국 이 실험은 토지 분배 같이 부분적인 사회 구조 개혁을 이루는 데는 성공하였으나, 광범위한 사회 구조 개혁에는 한계를 보였다.

3. 홀리오 코틀러, 페루 사회에 대한 살아있는 비판가

앞서 살펴보았듯이, 페루 사회를 이해하는 장기적 관점의 통찰력을 보여준 홀리오 코틀러는 현 페루 사회를 이해하고 지속적으로 비판을 제기하는 주요 사회학자 중 한명이다. 오늘날 페루가 당면한 정치, 사회, 경제 등 다양한 측면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분석이 탁월하다고 할 수 있다. 초기의 저작에서 프랑스의 역사사회학과 구조적 기능주의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1978년 『페루의 계급, 국가, 민족』이 출간되기 10년 전인 1968년에 출판한 『페루의 전통 지배 메커니즘과 사회 변화』(La mecánica de la dominación tradicional y del cambio social en el Perú)에서 이미 페루 정치 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시도했는데, 이 책이 『페루의 계급, 국가 그리고 민족』의 출발점이다. 특히 이 두 저작에서 벨라스코 정권의 코포라티즘적 성격을 비판한 까닭에 코틀러는 1973년 멕시코로 망명을 떠났고, 이곳에서 라틴아메리카와 미국의 여러 학자와 교류하게 되었다.

80년대 이후 민주주의로 이행한 이후에도 코틀러는 민주주의 정당 제도의 허약성의 요인에 대한 통찰력 있는 분석을 내놓았다. 특히 1980년 민주주의 이행을 이끈 사회 운동과 사회단체를 비롯하여 이들의 지지를 정치적 기반으로 삼고 있던 다양한 좌파 정당 세력과 전통적인 정당의 보수 지배 엘리트 세력 간의 정치적 견해 차이로 인해 정당 체제가 공고하지 않을 것임을 예견하기도 했다. 이후 후지모리 권위주의 정권 때는 권위주의 정권에 대한 지속적인 비판을 제기하면서 페루의 지성으로서 역할을 했다. 이러한 페루 사회에 대한 날카롭고 통찰력 있는 비판은, 2000년 후지모리 정권이 붕괴한 이후 등장한 여러 정권의 민주주의 제도 개혁이 시도되고 있는 가운데도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4. 변화는 불가능한가?

『페루의 계급, 국가, 민족』에서 코틀리가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바는 페루 자본주의 발전의 종속적인 성격과 이에 따른 이중적인 사회 구조로 인해 페루 사회의 지속적인 경제 위기와 정치 사회적 불안정성을 노출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는 식민 유산에 기인한 바가 크며, 식민 유산으로 인해 페루 사회를 통치하는 엘리트 계층의 통치 정당성이 매우 약하며, 이들이 근대 민족 국가 발전을 위한 프로젝트를 발전시키지 못했다는 것이다. 2011년 ‘발전의 역설’을 통해 밝히고 있듯이, 벨라스코 정권의 개혁으로 인해 기존의 과두 지배 계급에 의한 정치, 경제, 사회적 지배는 역사적 단절을 경험하였으나, 이후 통치 엘리트의 국가 발전 프로젝트 부재로 정치경제적 발전으로 이어지지 못했고, 그 결과 이중적 사회 구조가 심화되었음을 지적했다. 즉 경제성장에 따른 혜택이 소수에게 집중되면서 배타적 성격의 발전 모델이 지속되었고, 이해관계가 다른 각 세력 간의 정치적 제도권 내에서의 조율이 이뤄지지 못하면서 주기적인 정치사회적 불안정성을 노정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정치적 엘리트의 허약한 통치 정당성과 국가 발전 프로젝트의 부재로 인해 식민 유산의 영향을 받은 이중적 사회적 관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지적이 특히 90년대 이후 급진적인 형태로 추진되어 온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과 경제 발전 모델의 정치사회적 영향을 고려해 볼 때 분석적 타당성이 미약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페루의 자본주의적 발전과 사회 변동이 식민 유산의 지속적 영향력으로 변화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으로 이어지게 될 위험성을 안고 있다.

물론 코틀리가 페루 자본주의 발전 과정에서의 사회 변화와 그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은 아니지만 코틀리는 이러한 사회 변화와 변화요구가 이후 실질적인 변화로 공고화되지 못했던 이유를 중점적으로 분석하고자 했던 것이다. 즉, 식민 유산이라고 볼 수 있는 자본주의적 발전의 종속성과 그에 따른 과두 지배세력의 사회 배타적인 통치는 벨라스코의 개혁을 거치면서 지배 엘리트 통치의 물적 기반이 흔들리게 되면서 역사적 단절을 경험하기는 하였지만, 이러한 역사적 단절 이후의 사회 통합과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시도나 정치적 엘리트의 역할 부재를 강조하고자 한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2000년대 후지모리 권위주의 정권이 붕괴하고 정당제도 개혁이나 지방자치제 법의 시행과 같이 새롭게 민주주의 제도 강화나 대중의 정치 참여 공간 확대를 위한 정치제도적인 노력이 이루어져 왔지만 여전히 그 결과가 한정적인 측면에만 집중되어 있는 점도 코틀러의 이러한 인식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다른 라틴아메리카 국가, 그 중에서도 지난 2000년 이후 라틴아메리카 좌파 정권의 등장을 주도한 세력이 원주민 운동이나 농촌 사회 운동임을 상기할 때, 페루에서 이러한 사회적 움직임이 상대적으로 분절적이고 간헐적으로 등장했음은 2000년대 이후 페루에서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비판으로 지속적으로 정치사회적 불안정성이 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대안으로 발전하지 못한 요인과의 결부지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같이 읽어볼 만한 책

- Cotler, J. (1994), *Política y Sociedad en el Perú: Cambios y Continuidades*, Lima: IEP.
- Crabtree, J. (ed.) (2006), *Making Institutions Work in Peru: Democracy, Development and Inequality since 1980*, London: Institute for the Study of the Americas.
- Crabtree, J. (ed.) (2011), *Fractured Politics: Peruvian Democracy Past and Present*, London: Institute for the Study of the Americas.
- DeGregori, I. (ed.) (2000), *No Hay País Más Diverso: Compendio de Antropología Peruana*, Lima: IEP.
- De Soto, H. (2009), *El Otro Sendero: Una Respuesta Económica a la Violencia*, Lima: Grupo Editorial Norma.

서지현 — 한국외국어대학교 강사